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수능완성 (실전 모의고사)

성명	
----	--

수험번호							-				
------	--	--	--	--	--	--	---	--	--	--	--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십시오.
난 그 아픔마저 나의 것으로 간직하고 싶었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 공통과목 및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확인하고,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공통과목 1~12쪽
- 선택과목
 - 화법과 작문..... 13~16쪽
 - 언어와 매체..... 17~20쪽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잡지 편집장인 ‘나’는 우연한 기회에 소설가 박준이 가짜로 미치광이 행세를 하며 정신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마침 박준이 투고한 작품을 차일피일 미루며 발표 기회를 주지 않는 이유를 문학 담당 편집자인 ‘안 형’에게 묻는다.

“그렇다면 이 소설을 내보냈을 때 생길지 모른다는 말썽이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안 형의 얘기대로라면 말썽이고 뭐고 처음부터 그런 게 생길 리도 없지 않아요. 작품 자체가 어떤 발언을 완성된 목소리로 말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니까 말입니다.”

할 수 없었다. 나는 말 줄기를 다시 처음으로 돌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안 형은 이제 더욱 자신을 얻어 가고 있었다.

“그렇지요. 작품 자체가 소재 해석에 실패하고 있었다는 말씀은 저도 물론 동감이에요. 하지만 말썽으로 말하면 미완의 작품을 내보냈을 때보다 더 무의미한 말썽이 있겠어요? 되지도 않은 작품을 곧잘 칭찬하고 나서는 자들이 또 틀림없이 준동을 시작할 테니 말입니다.”

안 형은 진심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듯했다. 특히 ‘말썽’이란 말을 할 때 그는 야릇한 미소까지 짓고 있었다.

“아무래도 안 형의 편집만 같군요. 그 사람들에게는 박준의 소설이 또 어떤 다른 방식으로 완성되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안 형은 끝끝내 다른 사람의 해석 방법은 용납하지 않으려 하거든요.”

“편집이라도 할 수 없죠. 저로서는 이 시대의 요구라는 것을 일단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니까요.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전 그 소설이 어떤 식으로 완성되어 있느냐 아니냐 하는 그런 것은 별로 관심을 두어 보지 않았어요. 제겐 소재 해석만이 문제였죠. 작가가 어떤 소재를 만나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은 그 작가가 자기의 시대 양심에 얼마나 투철해 있느냐 하는 문제가 결정지어 주는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이죠. 박준의 소설은 바로 그런 점에서 저의 기대를 외면해 버렸어요. 제가 박준의 소설이 충분히 완성되지 못했다는 것은 그런 저의 관심 속에서지요.”

안 형의 이야기는 결국 박준의 소설이 무의미한 한 개인의 내면적 비밀 쪽으로 독자의 관심을 끌고 감으로써 자기 시대의 요구를 배반했고, 그리하여 소재 해석과 작품 완성에 다 같이 실패하고 말았다는 주장이었다. 박준이 이 시대의 작가인 이상, 그는 절대로 자기 시대 양심의 가장 우선적인 요구를 배반해서는 안 되며, 그것을 도외시한 모든 창작 행위는 가혹하게 매도당해 마땅하다는 투였다. 이를테면 안 형의 시대관이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그 역시 안 형의 편집이 아닐까요? 가령 모든 작

가들에게 자기 시대의 요구나 압력을 꼭 안 형과 같은 정도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이나, 또는 그것을 똑같이 받아들이고 있는 경우라 해도 어떤 일정한 방법 속에서만 그 시대정신에 투철해질 수 있다는 식의 생각 말입니다. 박준의 소설이 그런 식으로 쓰여졌다고 해서 그 소설이 전혀 우리 시대를 외면해 버렸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나는 이제 웃을 수밖에 없었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박준의 일에 관심을 갖게 된 ‘나’는 우연히 박준의 인터뷰 기사를 구하게 된다. 그 인터뷰 기사에서 ‘나’는 박준이 유년 시절에 겪은 전깃불의 공포, 곧 6.25 당시 경찰대인지 공비인지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이 전깃불을 얼굴에 내비치며 어느 편인가를 물었던 공포스러운 상황을 작가가 된 지금도 느끼고 있다는 내용을 보게 된다. 박준은 작가로서의 자기 진술을 억압하는 실체로서의 ‘전깃불’의 공포를 언급하며, 자신의 소설은 바로 그 전깃불의 공포를 형상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뷰는 그렇게 끝나고 있었다. 이번에는 정말로 모든 것이 명백해지고 있었다. 박준이 마지막으로 전깃불의 이야기를 썼던 것은 역시 우연이 아니었다. 박준은 작가란 괴로운 일이지만 그 정체가 보이지 않는 전깃불의 공포를 견디면서도 끝끝내 자기의 진술을 계속해 나갈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운명을 짊어진 사람들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박준은 그만한 각오조차도 지켜 내질 못해 온 셈이었다. 그의 독자들이, 안 형과 내가, 그의 소설을 내보내 주지 않은 교활한(또는 지나치게 용기가 없거나 용기가 없는 체하거나, 그 용기와 관련하여 편집이 심한) 편집자들이, 그보다도 그의 전깃불 뒤에서 끝끝내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채 복수만을 음모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입에서 입으로 건너다니는 정체불명의 소문들이 그것을 지켜 내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내면에 용틀임 치는 진술욕과 그것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 전깃불 사이에서 심한 갈등과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정체불명의 소문과 갈등을 빨아먹으며 전깃불은 그의 의식 속에서 엄청나게 크게 확대되어 갔다. 그 전깃불은 바로 어렸을 때부터 그의 속에서 은밀히 발아를 기다리고 있던 그 갈등과 불안의 씨앗이었다. 이제 그 씨앗이 발아를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박준의 마지막 소설 속에서 한 작가로 하여금 끝끝내 정직한 진술을 할 수 없게 만든 방해 요인의 상징으로 훌륭하게 완성되고 있었다. 그는 그의 소설 속에서 한 작가가 얼마나 가혹하게 자기 진술을 간섭받고 있으며 그

때문에 결국은 얼마나 무참한 파국을 겪게 되는가를 극명하게 증언해 준 것이다. 그가 그런 소설을 쓰게 된 것은 거의 필연적이었다.

박준은 그 모든 것을 2년 전에 벌써 다 예감한 모양이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 박준의 예감대로 진행되어 온 셈이었다. 박준이 그가 예언한 대로 정말 미친 사람으로 보일 만큼 전혀 자기 이야기를 하려 하지 않은 것도 사실은 누구보다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욕망을 숨기고 있기 때문일 터였다.

하지만 이제 내게 확실해진 것은 그런 박준의 사정만이 아니었다. 박준의 사정이 확실해진 만큼 또 하나 확실해진 것이 있었다. 잡지 일이 탁탁해진 이유였다. 원고들이 잘 견디지 않고 있는 것이나 견혀 들어온 원고들이라야 모두 그렇고 그런 이유가 비로소 분명해져 있었다. 전깃불 때문이었다. 박준을 괴롭히고 있는 전깃불은 비단 박준 그 한 사람만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진술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것이 비록 자발적이든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든, 또는 일부러든 무의식중에든 조금씩은 그 전깃불 빛 비슷한 것을 눈앞에 받아 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터. 누구나 자신의 전깃불은 가지고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그 전깃불은 이쪽에서 정직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그리고 진술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더욱더 두렵고 공포스럽게 빛을 쏘아 대게 마련이다. 원고들이 잘 견혀 들 리 없었다. 쉽사리 거 뒤들일 수 있는 글이란 그 전깃불 빛을 견디려 하지 않은 것들뿐. 그런 글들이 신통할 리 없었다. 사정이 거기까지 확실해지고 나자 나는 혼자 실소를 머금지 않을 수 없었다.

- 이청준, 「소문의 벽」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인물의 성격을 부각하고 있다.
- ②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각에 기대어 사건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 ③ 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시대상의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 ④ 풍자적 어조를 통해 특정 상황에 대한 인물의 체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서술자의 직접 서술을 통해 인물의 의식과 작중 상황이 독자에게 전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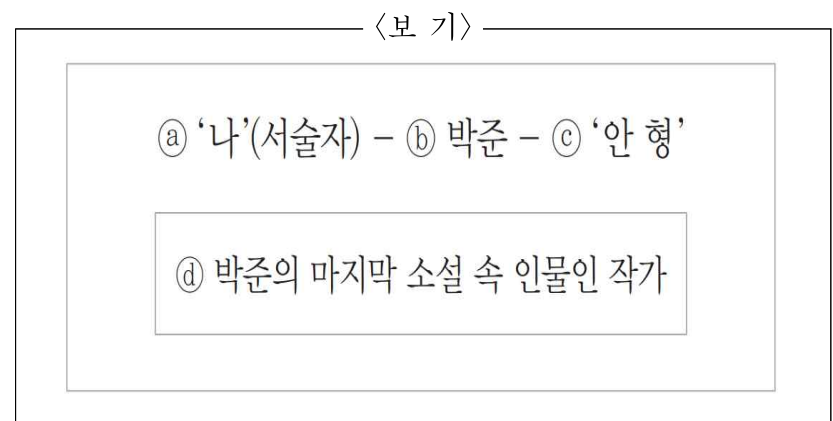
2.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안 형'은 박준의 작품을 칭찬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낸다.
- ② '안 형'은 작품의 완성 여부보다는 소재의 해석의 문제에 중점을 둔다.
- ③ '나'는 '안 형'과 마찬가지로 박준 식의 작품 완성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
- ④ '안 형'은 작품의 성패 여부를 작가가 시대의 양심에 얼마나 투철해 있느냐의 문제와 관련지어 판단한다.
- ⑤ '나'는 박준의 소설이 우리 시대를 외면한 작품이라는 '안 형'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3. [A]을 읽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박준의 마지막 소설은 전깃불 때문에 생긴 불안과 그로 인한 파국적 상황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 ② 박준의 소설 쓰기는 작가의 정직한 진술을 억압하는 시대적 현실을 드러내기 위한 창작 행위이다.
- ③ 박준의 전깃불 이야기는 편집자들의 편견을 이겨 내고 작품을 완성할 수 있는 창작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 ④ 박준은 전깃불의 공포를 견디며 자기 진술을 해야 하는 작가의 소임을 다하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던 작가였다.
- ⑤ 전깃불 뒤에서 정체 모를 소문을 만들어 내는 사람들은 작가적 소임을 펼치지 못하도록 박준을 억압한 존재들이다.

4. 윗글의 등장인물들을 <보기>와 같이 정리했을 때,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의 마지막 소설에서 채택한 창작 방법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의 편집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② 현실 속의 ㉡와 ㉡의 마지막 소설은 ㉠에게 창작 행위의 의미를 성찰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 ③ ㉠은 ㉣를 통해 ㉡의 개인적 고뇌를 이해하게 된다.
- ④ ㉠은 ㉡와 같등하고 있는 ㉢의 시대관에 대한 가치 판단을 배제한 채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 ⑤ ㉡와 ㉣는 모두 정직한 진술을 할 수 없게 억압을 받고 있는 존재이다.

[5~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마그네트론의 주요 구조〉

열을 이용하여 식품을 조리할 때는 식품의 표면을 가열하여 열전도를 통해 열이 그 내부까지 전해지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식품은 대개 열전도율이 낮아 가열 온도를 높일 경우 겉과 속의 온도 차이가 커지게 된다. 그 결과 겉은 타고 속은 익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열에 의해 영양소가 파괴될 수도 있다. 전자레인지의 전자기파의 한 종류인 마이크로파를 이용하여 식품을 조리하는 장치로 식품의 겉과 속을 동시에 고루 가열할 수 있다. 따라서 비교적 짧은 시간에 식품을 데울 수 있고, 수용성 비타민과 같은 영양소의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자레인지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자기파와 물의 특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전자기파는 공간에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주기적으로 변화하면서 전달되는 파동으로, 파장과 진동수의 곱은 항상 광속과 같다. 전자기파는 파장 또는 진동수를 기준으로 그 종류가 구분되며, 전자기파의 에너지는 진동수와 비례한다. 마이크로파는 파장이 1mm~1m에 이르는 전자기파로 금속에 가해지면 반사되고 공기나 유리, 종이 등은 투과한다. 하지만 마이크로파가 물과 같은 물질을 만났을 때는 그 물질에 흡수되면서 에너지를 전달하게 된다.

물 분자는 수소 원자 두 개가 산소 원자 한 개에 104.5°의 각을 이루며 결합된 형태이다. 물은 그 분자 내에서 수소 원자 쪽이 양의 전하*를, 산소 원자 쪽이 음의 전하를 띠는 극성 물질이다. 얼음과 같은 고체상일 때의 물 분자들은 방향과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액체상인 물로 존재할 때의 물 분자들은 그 방향과 위치가 유동적이다. 액체상의 물 분자에 마이크로파가 가해지면 물 분자는 그 극성으로 인해 마이크로파의 전기장*과 평행하게 되도록 회전 운동을 하게 된다. 마이크로파가 진행하면서 전기장의 방향은 주기적으로 계속 바뀐다. 그때마다 양의 전하를 띠는 수소 원자는 (-) 쪽으로, 음의 전하를 띠는 산소 원자는 (+) 쪽으로 끌리게 되면서 물 분자는 회전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전자레인지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우선 마이크로파를 발생시켜야 하는데, 전자레인지의 내부에는 마이크로파를 발생시키는 장치인 마그네트론이 있다. 마그네트론은 음극 막대와 이를 동심원으로 둘러싼 금속제 양극 원통 튜브, 그 위아래에 위치하는 강력한 자석으로 구성된다. 전자기파의 발생을 위해서는 먼저 음극 막대를 가열해야 한다. 가열된 음극 막대에서 전자가 방출되면 방출된 전자는 양극 원통 튜브를 향해 가게 되는데, 위아래에 형성된 자기장으로 인해 전자의 경로는 휘다. 이때 음극과 양극 사이에 적절한 전압을 걸어 주면 전자는 원통 내부를 계속 회전하게 된다. 금속 칸막이로 나뉜 공동 주변을 회전하는 전자는 공동 주위로 양극에 있던 전자의 왕복 운동을 유도하게 되는데, 이때 전자기파가 발생한다. 발생한 마이크로파는 도파로라는 관을 타고 음식이 놓인 전자레인지 속 조리실로 전달된다.

일반 가정용 전자레인지의 마그네트론이 만들어 내는 마이크로파의 진동수는 대략 2,500MHz이다. 이는 전기장의 방향이 1초에 대략 25억 번씩 반대 방향으로 바뀐다는 의미이다. 방향이 바뀌면서 물 분자끼리는 서로 충돌하게 되고, 회전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어 온도가 올라가게 된다. 이를 통해 전자레인지는 외부에서 열을 가하는 방식보다 훨씬 빨리 물을 끓는점까지 도달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원리 때문에 전자레인지는 수분을 포함한 식품들을 데울 때 유용한데, 유리컵은 전자레인지에서 잘 데워지지 않는다. 전자레인지의 마이크로파는 진동수가 크면 식품에 강하게 흡수될 수 있지만, 깊이 침투하기는 어렵다. 진동수가 작으면 깊이 침투할 수는 있겠으나 투과되는 양이 많아 효율적으로 조리를 할 수 없게 된다. 가정용 전자레인지의 진동수를 2,500MHz 내외로 한 것은 진동수에 따른 침투 깊이와 조리 효율을 고려한 것이다. 마이크로파가 식품 내부로 침투할 수 있는 두께는 식품마다 다른데, 고구마의 경우 평균적으로 3cm, 최대 5~6cm이므로 이보다 더 두껍다면 적당히 잘라야 고루 익힐 수 있다.

음식물을 손쉽게 가열할 수 있는 전자레인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전자레인지의 마이크로파가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줄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전자기파가 자신의 파장보다 1/50 정도로 작은 구멍을 통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전자레인지에 쓰이는 마이크로파의 파장은 광속에서 진동수를 나눈 값으로 구할 수 있는데 대략 12cm이다. 그래서 전자레인지의 앞 유리에 12cm의 1/50보다 작은, 지름 약 0.2cm의 구멍이 촘촘히 뚫려 있는 금속 그물을 붙여 놓으면 전자레인지 내부의 작용은 바깥과 거의 차단된다고 할 수 있다. 마이크로파는 금속으로 덮여 있는 조리실 내부에서 반사가 되고, 앞 유리의 금속 그물을 통해서도 반사되어 대부분 새어 나오지 않고 다시 안으로 들어간다. 이처럼 전자레인지 앞 유리의 금속 그물은 전자레인지가 인체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상당히 줄여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전하(電荷): 물체가 띠고 있는 정전기의 양, 전기 현상의

근원이 되는 실체.

*전기장(電氣場): 전기를 띤 물체 주위의 공간을 표현하는 전기적 속성.

5.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자레인지의 장점을 분석하여 새로운 가열 방식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전자레인지를 구성하는 특정 부품에 적용된 이론의 발전 과정을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③ 전자레인지의 구조를 설명하며 여러 종류의 가열 방식과 관련된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 ④ 전자레인지를 작동하는 과정에서의 안전상 유의점과 전자레인지가 식품에 미치는 유해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⑤ 전자레인지와 관련된 과학적 지식과 장치의 작동 과정을 통해 전자레인지에서 식품이 조리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6.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특정한 전자기파의 진동수를 알고 있다면 파장이 얼마인지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 ② 물 분자는 마그네트론의 음극에서 방출된 전자와의 접촉을 통해 1초에 25억 번 회전한다.
- ③ 전자레인지는 물의 회전 운동 에너지가 열에너지로 변하는 과정을 통해 물을 끓는점까지 도달시킨다.
- ④ 특정 각도를 이루며 결합된 물 분자 내의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는 각각 양의 전하와 음의 전하를 띤다.
- ⑤ 마그네트론의 자석으로 인해 형성된 자기장은 가열된 음극 막대에서 방출된 전자가 양극 원통 튜브를 향해 가다가 휘도록 만든다.

7. 윗글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자레인지의 도파로는 유리로, 내부 벽면은 금속으로 만들겠군.
- ② 물에 녹은 영양소는 마이크로파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온전하게 보존되겠군.
- ③ 냉동된 음식을 물에 적신 후 전자레인지로 조리하면 음식을 더 빨리 녹일 수 있겠군.
- ④ 마그네트론의 음극 막대에서 방출된 전자가 양극에 닿음으로써 마이크로파가 발생하겠군.
- ⑤ 전자레인지 제조 업체는 전자레인지의 앞 유리에 금속 그물을 부착할지의 여부를 소비자의 선택 사항으로 두겠군.

8.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마이크로파가 수분이 함유된 음식에 가해질 때 흡수되는 정도는 진동수에 비례하고, 칩투 두께는 진동수에 반비례한다. 또한 마이크로파가 흡수되는 정도가 클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물질에 전달되는데, 가정용 전자레인지에서 이용하는 마이크로파와 달리 산업용으로는 ㉠진동수가 915MHz인 마이크로파를 이용하는 전자레인지도 있다.

- ① 음식물 표면에 가까운 물 분자는 ㉠보다 가정용 전자레인지 속에서 더 빠르게 회전 운동할 것이다.
- ② ㉠을 사용하면 가정용 전자레인지와 달리 마이크로파가 음식을 포장한 종이에 흡수가 될 것이다.
- ③ 가정용 전자레인지 앞 유리의 금속 그물은 ㉠의 앞 유리에 부착된 금속 그물보다 더 촘촘해야 할 것이다.
- ④ 가정용 전자레인지보다 파장이 긴 ㉠은 음식물 표면에 가까운 물 분자에 전달할 수 있는 에너지가 더 적을 것이다.
- ⑤ 가정용 전자레인지와 비교하여 진동수가 작은 ㉠은 두께가 두꺼운 음식물을 고르게 가열하는 데에 더욱 적합할 것이다.

9.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질문] 제가 두께가 3cm 정도로 얇은 고구마를 전자레인지로 손쉽게 빠르게 조리해서 먹으려고 하는데요, 전자레인지에서 고구마를 익히면 군고구마와 맛이 다를까요?

[답변] 고구마의 수분 함량은 60% 정도입니다. 고구마 안에는 전분을 당분으로 바꾸어 주는 역할을 하는 베타-아밀레이스라는 효소가 있어요. 그 효소는 고구마에 열을 가하는 과정에서 고구마의 내부 온도가 60℃ 전후일 때에 가장 활발하게 작용하지요. 따라서 효소의 작용을 극대화하려면 고구마를 천천히 가열하여 60℃ 정도로 온도가 오래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좋아요. 온도가 70℃를 넘어 버리면 효소가 변성되어 활동이 중지됩니다. 전자레인지로 고구마를 조리하면,

㉠

- ① 마이크로파가 고구마의 껍질인 표면은 익히더라도 껍질 안까지는 침투할 수 없기 때문에 군고구마만큼 달게 조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② 고구마의 물 분자가 마이크로파의 영향으로 회전 운동 하면서 효소의 변성을 유도하여 고구마가 익어 가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보조하기 때문에 군고구마만큼 달게 조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③ 마이크로파는 고구마 속 수분이 회전하는 속도를 더디게 하여 고구마의 내부 온도가 베타-아밀레이스를 활성화하는 정도까지 다다를 수 없기 때문에 군고구마만큼 달게 조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④ 마이크로파가 고구마 속 물 분자에 영향을 미쳐 고구마를 익히는 과정에서, 고구마의 내부는 전분을 당분으로 바꾸는 적정 온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되므로 군고구마만큼 달게 조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⑤ 마이크로파가 고구마의 물 분자를 지속적으로 회전시켜 수분이 증발하도록 만드는 과정에서 베타-아밀레이스가 활성화되는 온도에 충분히 머무르지 못하고 빨리 끓는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군고구마만큼 달게 조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10~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하늘이 만드심을 일정 고루 하련마는
어찌 된 인생이 이다지도 괴로운고
①삼십 일에 아홉 끼니 얻거나 못 얻거나
십 년 동안 갖 하나를 쓰거나 못 쓰거나

안표(顔瓢)*가 자주 빈들 나같이 비었으며
원헌(原憲)*의 가난인들 나같이 극심할까
봄날이 따뜻하여 뼈꾸기가 보채거늘
동편 이웃 쟁기 얻고 서편 이웃 호미 얻고
집 안에 들어가 씨앗을 마련하니
②올벼 씨 한 말은 반 넘게 쥐 먹었고
기장 피 조 팔은 서너 되 부쳤거늘
축고 주린 식구 이리하여 어이 살리
이봐 아이들아 아무쪼록 힘을 써라
죽 옷물 상전 먹고 건더기 건져 종을 주니
눈 위에 바늘 젖고 코로는 휘파람 분다
올벼는 한 발 뜯고 조 팔은 다 묵히니
짜리피 바랭이*는 나기도 싫지 않던가
환곡 장리는 무엇으로 장만하며
부역 세금은 어찌하여 차려 낼꼬
이리저리 생각해도 견딜 수가 전혀 없다
장초(莠楚)의 무지(無知)*를 부러워하나 어찌하리

시절이 풍년인들 아내가 배부르며

③겨울을 덥다 한들 몸을 어이 가릴꼬
베틀 북도 쓸데없어 빈 벽에 남겨 두고
술 시루도 버려두니 붉은빛이 다 되었다
세시 삭망 명일 기제는 무엇으로 제사하며
원근 친척 손님들은 어이하여 접대할꼬
이 얼굴 지녀 있어 어려운 일 하고 많다

[B] 이 원수 가난 귀신 어이하여 여의려뇨
술에 음식을 갖추고 이름 불러 전송하여
길한 날 좋은 때에 사방으로 가라 하니
웅얼웅얼 불평하며 화를 내어 이른 말이
어려서 지금까지 희로애락을 너와 함께하여
죽거나 살거나 여월 줄이 없었거늘
어디 가 뉘 말 듣고 가라 하여 이르느뇨
우는 듯 꾸짖는 듯 온가지로 험박커늘
돌이켜 생각하니 네 말도 다 옳도다
무정한 세상은 다 나를 버리거늘
네 혼자 신의 있어 나를 아니 버리거든
위험으로 회피하며 잔피로 여월려나
하늘 만든 이내 가난 설마한들 어이하리
빈천도 내 분수니 서러워해 무엇하리

- 정훈, 「탄궁가(嘆窮歌)」

- *안표: 안회(顔回)의 표주박. 공자의 제자인 안회는 한 소쿠리 밥과 한 표주박 물로 누향에 살면서도 즐거워했음.
- *원헌: 공자의 제자로 궁핍함 속에서도 청빈하게 살았음.
- *짜리피 바랭이: 짜리피와 바랭이로 잡초의 일종임.
- *장초의 무지: 『시경』에 나오는 말. 부역으로 고통받던 백성들이, 무지하여 근심 없는 장초 나무를 부러워했음.

(나)

부령에 유배 온 지 몇 달 만에 돈이 다 떨어져 먹을 것이 없었다. 주민에게 의논했더니 이렇게 일러 주었다.

“바닷가는 곡식이 비싸고 소금이 싼데, 오랑캐 땅은 곡식이 많고 소금이 부족합니다. 바닷가에서 소금을 사서 오랑캐에게 팔고 곡식을 산다면 그 값이 원래 곡식의 몇 배나 될 것이니, 입에 풀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처음에 이 말을 듣고서 이것은 장사꾼이 하는 일이니 나는 차마 할 수 없다고 한참 동안 주저했다. 배에서 소리가 나고 아이종이 성을 내었다. 잠시나마 죽지 않기 위해 그 방법대로 하려니 얼굴이 붉어지고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리하여 아이종을 시켜 몇 말 곡식을 가지고 구십 리 떨어진 바닷가에 가서 소금을 사 오게 하니, 소금이 열 말 정도 생겼다. 이 소금을 말에 싣고 백이십 리 떨어진 북관(北關)으로 가서 곡식을 사 오라 하자, 곡식이 스무 말 정도 생겼다. 길을 오가며 사고팔 때마다 반달이 걸리므로 내 말이 지치고 내 아이종도 지쳤지만 내 배는 굶주리지 않았다. 먹을 것이 모자랐을 때는 온 집안사람들이 성을 내고 사람다

운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 곡식을 가지고 갈 적에는 이렇게 당부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졌으니 너는 이틀 안으로 소금을 사 오너라.”

소금을 싣고 갈 적에는 이렇게 신신당부했다.

“끓주린 지 이미 오래다. 너는 빨리 곡식을 사 와라.”

아이종이 떠난 뒤로는 손가락을 꼽아 날을 계산하며 돌아 오기를 기다렸다. 아이종이 곡식을 사 오자 집안사람 모두 곡식을 둘러싸고 보면서 얘기를 했다.

“이 곡식을 얻었으니 우리는 조금이나마 연명할 수 있겠다.”

불을 때서 밥을 짓고 손가락으로 떠서 입에 넣으니 알알이 모두 맛이 있었다. 끓주린 배를 채우고 뼈만 남은 몸에 살이 붙자 화기애애하게 기뻐하며 머리를 맞대고 축하했다.

“이렇게 장사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덩이에 뒹구는 신세가 되었을 것이다. 이제는 변방의 끓주린 귀신이 되지 않을 것이다.”

처음에는 장사를 하는 것이 부끄러웠고, 중간에는 장사를 하느라 마음을 쓰고, 끝내는 먹을 것을 얻어 다행으로 여겼다. 얻으면 살고 얻지 못하면 죽는다는 생각에 밤낮으로 약간의 쌀이나마 얻기를 바라며 오직 장사를 잘하지 못할까 걱정했다. ㉔마음에 담은 것은 오직 이 일뿐이었다. 목숨을 건지기에 급급하여 수치를 아는 본심은 죄다 잃어버리고, 시간이 지나자 습관이 되어 마침내 판사람이 되고 말았다. 때때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다가도 다 웃고 나면 불쌍하고 안타까웠다.

천지 사이에 사는 백성은 오직 사농상고(士農商賈) 넷뿐이다. 나는 젊었을 적 성현의 책을 읽으며 오직 도를 추구했다. 옛일이 아니면 감히 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사(士)이다. 늙어서는 먹고사는 일이 벌미가 되어 오로지 먹을 것을 추구했다. 장사가 아니면 할 일이 없었으니 이것이 상(商)이고 고(賈)이다. 이 몸이 경험하지 못한 것은 농(農)뿐이다. 농부는 땅을 지키며 김매기를 일삼아 실컷 먹고 배를 두드리며 즐겁게 생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백발의 늙은이가 태평성대에 죄를 짓고 변방에 유배되어 갇히는 신세가 되었으니,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다. 비록 농부가 되고자 한들 될 수 있겠는가.

옛날의 선비는 경전과 역사책을 인용하여 도덕과 이치를 이야기했다. 성인의 무리를 배운다는 생각으로 임금을 성군으로 만들고 백성에게 은택을 베풀어 차츰 삼대(三代)* 이전의 세상으로 만들고자 했다. 장사꾼에게 침을 뱉고 농부를 멸시하며, 감히 입에 올리지도 않고 천지 차이로 여겼다. 지금은 장사를 하면서도 달게 여기고, 농부로 말하자면 감히 바랄 수도 없다. ㉕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푸른 하늘에 오르는 것도, 구덩이에 떨어지는 것도 잠깐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다. 몸이 굴복하면 마음도 굴복하는 법, 이 몸으로 장사를 일삼으니 내가 부끄럽고 내가 우습고 내가 불쌍하고 내가 안타까웠다.

내가 생각하며 바라는 점은 이것이다. 성상의 도량이 하

늘과 같으니, 만약 개미처럼 미천한 내가 시골의 농부가 되는 것을 허락해 주신다면, 손에 쟁기를 들고 밭 갈기를 일삼아 위로는 제사를 지내고 다음으로 조세를 바치며 아래로 연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미천한 내가 살 곳을 얻어 태평성대에 성상의 덕을 칭송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아, 소공(召公)*이 농사를 강조한 것은 치세(治世)에 공을 이룬 뒤의 일이었다. 나는 유배되어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으니, 이 또한 몹시 어리석은 것이다. 그리하여 혀를 차며 이 글을 짓는다.

- 홍성민, 「무염판속설(貨鹽販粟說)」

*삼대: 고대 중국의 세 왕조. 하(夏), 은(殷), 주(周)를 이룸.

*소공: 중국 주나라 때의 정치가. 선정(善政)을 베풀었던 인물로 유명함.

10. (가)의 화자와 (나)의 글쓴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화자와 달리 (나)의 글쓴이는 미래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 ② (가)의 화자와 달리 (나)의 글쓴이는 백성을 보살피지 않는 정치를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 ③ (나)의 글쓴이와 달리 (가)의 화자는 특정한 인물을 본받으며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가)의 화자와 (나)의 글쓴이는 모두 현실의 어려움으로 인한 고뇌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의 화자와 (나)의 글쓴이는 모두 학문에 힘쓰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해 좌절하고 있다.

11. [A]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고사를 인용하여 자신의 처지를 나타내고 있다.
- ②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 ③ 의문의 방식으로 자신의 괴로움을 강조하고 있다.
- ④ 대구적 표현을 사용하여 운율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⑤ 대상에게 말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바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12. <보기>를 참고하여 [B]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가)에서 화자는 자신과 ‘가난 귀신’ 사이의 대화 상황을 제시하여 가난으로 인한 고통, 가난에 대한 인식 변화와 깨달음, 그리고 가난을 수용하는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 ① 화자가 ‘이 원수 가난 귀신 어이하여 여의려뇨’라고 한 것에서, 화자가 처음에는 가난을 벗어나야 할 고통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겠군.
- ② ‘가난 귀신’이 화자에게 ‘어려서 지금까지 희로애락을 너와 함께하여’라고 한 것에서, 가난으로 인한 화자의 고통이 오래된 것임을 알 수 있겠군.
- ③ 화자가 ‘돌이켜 생각하니 네 말도 다 옳도다’라고 한 것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가난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있음을 알 수 있겠군.
- ④ 화자가 ‘위협으로 회피하며 잔피로 여윌려냐’라고 한 것에서, 자신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있음을 알 수 있겠군.
- ⑤ 화자가 ‘하늘 만든 이내 가난 설마한들 어이하리’라고 한 것에서, 가난을 자신의 운명으로 수용하는 데 주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군.

13. <보기>에서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학생들이 (나)를 감상한 내용 중 적절한 것끼리 골라 묶은 것은?

— <보 기> —

선생님: (나)는 1591년 글쓴이인 홍성민이 당쟁으로 인해 함경도 부령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작품입니다. 이전의 유배 문학이 주로 연군(戀君)의 정을 호소하던 것과는 달리, 이 작품은 유배 생활의 경제적 곤란, 신분에 대한 고정 관념, 유배에서 풀려나게 해 달라는 소망 등 다양한 내용을 제시하는 새로운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당대 북쪽 변방 유배지의 인심과 풍속을 연구하는 자료로서의 가치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나)에 나타난 특징을 확인해 봅시다

학생 1: 유배지의 인심이 나빠 이에 영향을 받은 중의 무례한 행동으로 인해 주인과 종 사이의 법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

학생 2: 당대의 북쪽 변방 유배지에서는 물건과 물건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거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

학생 3: 글쓴이가 임금의 안위를 걱정하며 임금을 그리워하는 것은 이전 유배 문학의 연군의 정과 연결할 수 있어요. ……㉢

학생 4: 글쓴이는 유배 생활의 경제적 곤란을 모면하기 위한 자신의 선택을 부끄러워하는데, 이것은 신분에 대한 고정 관념과 관련이 있어요. ……㉣

학생 5: 글쓴이는 임금의 은혜로 유배에서 풀려난다면 직접 농사를 짓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어요. ……㉤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1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자신이 매우 가난한 처지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농사를 지으려 하나 종자가 부족한 상황임을 나타내고 있다.
- ③ ㉢: 겨울에 입을 최소한의 옷도 부족함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⑤ ㉤: 출세와 몰락은 순간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

[15~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은 명사 디노미네이션 앞에 '다시'를 뜻하는 접두사 're-'를 ㉠붙여 만든 단어이다. 이미 쓰이고 있는 화폐의 액면가를 다시 설정하는 일을 일컬으며 통상적으로 화폐의 액면 절하를 뜻하는 말로 쓰인다. 리디노미네이션은 통용되는 모든 지폐나 동전에 대한 실질 가치는 그대로 ㉡둔채 액면을 특정 비율을 적용하여 낮은 숫자로 변경하거나 그와 더불어 새로운 화폐 단위를 지정하는 방법을 통해 실행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마지막 화폐 개혁이 있었던 1962년 이후, 지속적 경제 성장으로 말미암아 화폐 발행이 증가하는 만큼 물가도 꾸준히 상승했다. 국가 차원의 리디노미네이션을 실행하면, 통용되는 화폐의 자릿수를 줄여 기업 등에서의 장부 기재상 불편을 줄일 수 있다.

2016년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는 국내 경제 규모를 고려하여 우리나라 화폐 단위에 대한 리디노미네이션을 고민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가 차원의 리디노미네이션은 본격적 논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일각에서는 국가 경제 규모가 비약적으로 커지며 통용되는 화폐의 자릿수가 늘어난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화폐의 자릿수를 줄여 국제 무역에서 편의를 도모해야 하며 그것이 자국 통화의 대외적 위상을 제고하는 일이라는 의견도 있다. 국가 차원의 리디노미네이션이 실행되면 모든 상업에서 화폐의 자릿수를 줄여 표기하게 되므로 계산과 지급상의 편의가 확보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새로운 화폐에 대한 제작 비용과 더불어 화폐 관련 기계나 프로그램 등을 교체하고 수정하는 데 들어갈 사회적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국가 차원의 리디노미네이션이 실행될 경우, 화폐의 자릿수의 감소에 따라 생활 물가가 오르며 인플레이션을 ㉣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원화 단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1,000분의 1 리디노미네이션이 우리나라에서 실행된다면 상인은 기존의 19,000원짜리 물건을 19원이 아니라 20원으로 올려서 판매할 가능성이 크다. 리디노미네이션 실행 전 1,000원과 실행 후 1원의 가치가 같더라도, 소비자는 실행 후 1원의 인상에 대해 관대한 입장을 보일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야기되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불안이 지속된다면, 화폐 가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에 대한 수요를 높이는 데까지 이어질 수 있다.

국가 차원의 리디노미네이션 도입과는 별개로 일부 국내 소매점에서 리디노미네이션 표기가 자발적으로 쓰이고 있는 경우가 있다. 10,000원을 1,000:1의 비율로 조정하여 '10.0'과 같이 표기하는 것이다. 이는 상품의 실제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숫자 표시 방식의 변화를 통해 구매 결정 과정의 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심리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

다. 이와 관련하여 이중 정보 처리 이론에서는 구매 과정에서 가격이 제시되는 형태는 소비자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중 정보 처리 이론에서는 인간의 사고 체계를 이른바 '빠른 직관'과 '느린 이성'으로 구분한다. 빠른 직관은 무의식, 직관에 의해 작동하는 기제로서 본능적이거나 숙달된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적합하며, 빠른 직관의 사고 체계를 통해 인간은 자동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에 따라 인지적 부담을 줄이며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이때 처리 과정을 의식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어렵다. 반면 느린 이성은 의식, 이성에 의해 작동하는 사고 체계로 심사숙고하여 비중 있는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 작동한다. 이중 정보 처리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정보 처리 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인간은 빠른 직관과 느린 이성의 협응을 통해 의사 결정을 효율적으로 ㉤내리고자 한다. 일상적 사건의 원활한 처리와 단기적 예측에 효과적인 빠른 직관은, 느린 이성을 필요로 하는 일을 최소화하도록 만든다. 전체적인 인지 과정의 수고를 줄이고 정보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하는 것이다. 빠른 직관의 사고 체계 내에서 인간은 종종 부정확한 판단을 하고, 예측이 어긋나는 상황에 직면한다. 느린 이성은 인지적 노력이 요구되는 작업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비교적 긴 시간을 들여 정보를 처리하고 판단에 이르므로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중 정보 처리 이론에서는 반응 속도의 차이로 인해 일상 속 인간은 빠른 직관을 주로 활성화하고, 느린 이성의 개입을 가능한 한 줄이고자 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시간의 제약이나 복잡한 계산과 같은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그러한 경향은 강화된다고 본다. 심리학자 애플리와 길로비치는 유사한 사례로 여행지에서 외화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사람들은 정확한 환율 계산을 통해 구매를 결정하기보다는 표기된 액면가를 확인하고는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불완전한 어림짐작으로 구매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카페나 음식점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는 리디노미네이션 표기 방식은 소비자가 가격 정보를 처리할 때 빠른 직관의 영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릿수의 감소는 소비자에게 인지적 부담을 덜어 주고, 소비자는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순간적 과정에서 실제 지불 금액의 가치를 떠나, 적은 숫자이기에 저렴하다고 여기게 되는 판단을 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실질 가치의 변화 없이 액면의 자릿수가 달라지는 것은 소비 활동 과정에서 금액을 지불하는 주체의 의사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5.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공인되지 않은 리디노미네이션 표기의 부적절성을 모의 실험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 ② 국가 차원의 리디노미네이션이 실행된 실제 사례를 통해 리디노미네이션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있다.
- ③ 경제 활동 과정에서 리디노미네이션 표기가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특정 이론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 ④ 리디노미네이션의 의미를 통해 정책을 실행하기 전에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해야 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 ⑤ 국가 차원의 리디노미네이션 실행 과정을 통해 여론의 흐름이 정책 도입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16.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부터 리디노미네이션의 실행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다.
- ② 화폐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액면을 특정 비율의 낮은 숫자로 변경하면서 화폐 단위를 바꾸는 것도 리디노미네이션이다.
- ③ 현재 우리나라의 일부 소매점에서는 국가적 정책과는 관련 없이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리디노미네이션 표기를 사용하기도 한다.
- ④ 이중 정보 처리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평소에 자동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에 따라 정보를 처리하려는 기제를 활성화하는 경향이 있다.
- ⑤ 외국 화폐가 통용되는 여행지에서 소비 주체는 환율을 계산한 가격보다는 표기된 액면가를 통해 구매를 결정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17. 윗글과 <보기>를 고려할 때, '이중 정보 처리 이론'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기존의 경제학적 인간관은 인간이 선택의 상황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모두 수집하고, 그것을 통해 벌어질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여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결정을 내리고 행동한다고 가정한다. 이중 정보 처리 이론은 기존의 경제학적 인간관이 지닌 한계를 보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① 인간이 일상에서 종종 하게 되는 비합리적 선택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시도이군.
- ② 인간이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존재임을 설명하는 이론이군.
- ③ 인간이 합리적 선택과 비합리적 선택 사이에서 갈등하는 존재임을 설명하기에 적절하군.
- ④ 인간이 의사 결정 과정에서 정확성을 제고하는 여러 방법을 실생활에 적용하여 설명하는 이론이군.
- ⑤ 인간이 소비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군.

18. 윗글을 고려하여 <보기>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한 연구자가, 설정된 상황 속에서 실험 집단이 나타내는 행동 패턴을 확인하고자 했다. 연구자는 모든 피실험자에게 현재 용돈이 얼마 남지 않아 가능하다면 적은 돈을 지출하려는 마음을 먹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한 후 ㉠ 집단에게는 현재 원화의 액면가를 그대로 표기한 가격표를, ㉡ 집단에게는 현재의 원화를 1,000 : 1의 비율로 하향 조정한 리디노미네이션 표기 방식의 가격표를 각각 제시했다. 그리고 다시 각 집단의 피실험자를 둘로 나누어 한쪽에는 주문을 완료하기까지 20초 내에 세 가지의 메뉴 선택을 마무리하도록, 다른 한쪽에는 5초의 시간을 주어 세 가지를 고르도록 했다. 연구자는 실험이 끝난 후 모든 피실험자의 선택 결과를 종합하여 각 상황별 주문 금액의 평균값을 아래와 같이 도출할 수 있었다.

메뉴 선택 시간 \ 집단	㉠	㉡
5초	16,000 ... (a)	19,0 ... (b)
20초	14,000 ... (c)	10,5 ... (d)

- ㄱ. (a)와 (b)의 차이에서 자릿수가 많고 시간적 여유가 많으면 빠른 직관의 처리 과정 중에 느린 이성이 개입하기 쉽다는 것을 알 수 있군.
- ㄴ. (b)와 (d)의 차이에서 시간적 여유가 적을 때 빠른 직관의 작용이 활성화된다고 추론할 수 있군.
- ㄷ. (c)와 (d)의 차이에서 자릿수가 많을 때보다 적을 때 인지적 부담이 낮아져 오류가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군.
- ㄹ. (b)와 (d), (c)와 (d)의 차이에서 자릿수가 적고 시간적 여유가 많을 때 느린 이성의 작용이 활성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군.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19. <보기>는 학생들이 리디노미네이션의 국가적 실행에 대해 대화한 내용의 일부이다. 윗글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학생 1: 1,000분의 1 리디노미네이션이 만약 실행된다면, 소비자는 실행되기 전 1,000원의 인상보다 실행 후 1원의 인상에 심리적 저항감이 덜할 것이고, 판매자 역시 값을 보다 쉽게 올릴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확산되면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학생 2: 화폐 가치의 불확실성은 실물 자산에 대한 수요를 높여 부동산으로 자금이 모일 우려가 커질뿐더러, 화폐의 자릿수와 대외적 위상은 비례한다고 볼 수 있는데 굳이 화폐의 자릿수를 낮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이미지를 생각한다면 리디노미네이션의 국가적 실행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학생 3: 고려해야 할 것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리디노미네이션이 실행되려면 새로이 통용될 화폐를 만드는 비용, 화폐와 관련된 자동화 기기를 교체하고 소프트웨어를 수정하는 데 들어갈 비용이 상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리디노미네이션이 가져올 효용이 더 큰 것인지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학생 4: 하지만 현재 한국의 명목 GDP는 1962년과 비교하면 5,000배 이상 높아졌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편의점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살 때도 천 단위가 넘는 금액을 지불하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 5: 실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에서 원화로 값을 치르며 혼란을 겪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기업에서의 장부 기재, 일상 속에서의 계산과 지급상에서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화폐 액면의 자릿수를 일정 비율로 줄이는 방안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 ① 학생 1의 의견
- ② 학생 2의 의견
- ③ 학생 3의 의견
- ④ 학생 4의 의견
- ⑤ 학생 5의 의견

20. 밑줄 친 ㉠~㉥와 동일한 의미로 쓰이지 않은 것은?

- ① ㉠: 부부는 정을 붙이면서 살기 마련이다.
- ② ㉡: 아이를 지금 상태로 두어서는 안 된다.
- ③ ㉢: 그는 첫 번째 시집을 세상에 내놓을 예정이다.
- ④ ㉣: 거짓이 불신을 낳아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다.
- ⑤ ㉤: 면접관은 힌 지원자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렸다.

[21~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비장이 미소하고 처소로 돌아와서 수일 후에 분부하여, 춘풍이를 잡아들여 형틀 위에 올려 매고,

“이놈, 너 들어라. 내가 춘풍이나? 너는 웬 놈으로 막중한 나랏돈 호조 돈을 빌려 쓰고 평양 장사 내려와서 사오년이 지나가되 일 푼 상납 아니하기로, 호조에서 공문을 내려 ‘너를 잡아 죽이라.’ 하였으니 너는 죽기를 사양치 말라.”

하고 사령에게 호령하여,

“각별히 매우 쳐라.”

하니, 사령이 매를 들고 십여 대를 중장하니, 춘풍의 약한 다리에서 유혈이 낭자한지라. 비장이 내려다보고 또 치려 하다가 혼잣말로 “차마 못 치겠다.” 하고 사령을 불러,

“너 매 잡아라. 춘풍아 너 들어라. 그 돈을 다 어찌하였느냐? 투전을 하였느냐? 돈 쓴 곳을 바로 아뢰어라.”

춘풍이 형틀 위에서 울면서 여쭙되,

“소인이 호조 돈을 내어 쓰고 평양에 내려와서 내 집주인 추월이와 일 년을 함께 놀고 나니 한 푼도 없어지고 이 지경이 되었으니, 나리님 분부대로 죽이거나 살리거나 하옵소서.”

비장이 본래 추월이라 하면 원수같이 아는 중에, 이 말을 듣고 이를 갈고 호령하여 사령에게 분부하되,

“네 가서 그년 잡아 오라. 바빠바빠 잡아 오되, 만일 지체하였다가는 네가 중죄를 당하리라.”

하니 사령이 덜미 집어 잡아 왔거늘,

“형틀 위에 올려 매고 별태장 골라잡고 각별히 매우 쳐라. 사령, 네가 사정을 두었다가는 네 목숨이 죽으리라.”

하나 치고 고찰*하고, 둘을 치고 고찰한다. 매마다 표를 하며 십여 대를 중장하며,

“이년, 바빠 다짐하여라.”

호령을 서리같이 하는 말이,

“네 죄를 네가 아느냐?”

추월이 여쭙되,

“춘풍이 가져온 돈, 소녀가 어찌 아오리까?”

비장이 이 말 듣고 성을 내어 분부하되,

“여담질각이라 하는 말을 네 아느냐? 불 같은 호조 돈을 영문(營門)이 물어 주랴, 본관(本官)에서 어 주랴, 백성에게 수렴하랴? 네 이 지경에 무슨 잔말하랴?”

군뢰 등이 두 눈을 부릅뜨고 형장(刑杖)을 높이 들어, 백일청천(白日青天)에 벼락 치듯 만첩청산(萬疊靑山) 울리듯 금장(禁仗) 소리 호통치며 하는 말이,

“네가 모두 발명치 못할까? 너를 우선 죽이리라.”

하고 주장(朱杖)으로 지르면서 오십 대 중장하고,

“바빠 다짐 못 할쏘냐?”

서리같이 호령하니, 추월이 기가 막혀 혼백이 달아난 듯 혼미 중에 겁내어 죽기를 면하려고 애걸하여 여쭙되,

“국법(國法)도 엄숙하고 관령(官令)도 지엄하고 나리님 분부도 엄하오니, 춘풍이 가져온 돈을 영문 분부대로 소녀

가 바치리다.”

비장이 하는 말이,

“호조에서 공문 놓아 너를 빨리 죽이라 하였으되, 네 죄를 내가 알고 돈을 모두 바치겠다 하니 너를 살려 주거니와, 호조 돈 이자는 자모지례(子母之例)*로 오천 냥을 전부 궤봉하라.”

추월이 여쭙되,

“십 일 말미를 주옵시면 오천 냥을 바치리다.”

하고 다짐을 써서 올리거늘, 그제야 비장이 춘풍이와 추월이를 형틀에서 내려놓고, 춘풍이를 다시 불러 가만히 약속하되,

“열흘 안으로 전부 받아 가지고 서울로 올라오라. 내가 또한 유고(有故)하여 먼저 떠나 올라가니, 네가 서울로 올라오거든 댁 문하(門下)에 문안하라.”

춘풍이 감사하여 내려서서 여쭙되,

“나리님 덕택으로 호조 돈을 수쇄하옵니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돈을 되찾은 춘풍은 서울로 돌아와 장사를 잘하고 온 듯 아내에게 거드름을 피우는데, 이에 아내는 다시 비장의 차림으로 춘풍 앞에 나타난다.

회계 비장 하는 말이,

“평양에서 떠날 적에 너더러 이르기를, 돈을 싣고 서울로 올라오거든 댁에 문안하라 하였더니, 소식이 없기로 매일 기다리다가 아까 마침 남산 밑의 박 승지 댁에 술을 먹고 대취하여 종일 놀다가, 홀연히 내가 왔단 말을 듣고 네 집에 왔으니 흰죽이나 쭈어 달라!”

하니, 춘풍이 제 지어미를 아무리 찾은들 있을쏜가. 제가 손수 죽을 쭈려고 죽쌀을 내어 들고 부엌으로 나가거늘, 비장이 호령하되,

“네 지어미는 어디 가고, 나에게 내외(內外)를 하느

[A] 냐?”

춘풍이 묵묵부답하고 혼잣말로 심중에 헤아리되,

‘그립던 차에 가솔을 만났으니 우리 둘이 잠이나 잘자 볼까 하였더니, 아내는 간데없고 비장은 이처럼 호령하니 진실로 민망하나 무가내하(無可奈何)*라.’

회계 비장이 내다보니, 춘풍의 죽 쭈는 모양이 우습고도 볼만하다. 그제야 죽상을 들이거늘, 비장이 먹기 싫은 죽을 조금 먹는 체하다가 춘풍에게 상채로 주며 하는 말이,

“네가 평양 감영 추월의 집에 사환으로 있을 때에 다 깨진 흰 사발에 누룽지에 국을 부어서 숟가락 없이 뜯아래 서서 되는대로 먹던 일을 생각하며 다 먹어라!”

하니, 그제야 춘풍이 아내가 어디서 죽 먹는 양을 볼까 하여 여기저기 살펴보며 얼른얼른 먹는지라. 그제야 춘풍 아내 혼잣말로,

‘이런 거동 볼작시면, 누가 아니 웃고 볼까? 하는 행실 저러하니 어디 가서 사람으로 보일런가? 아무튼 속이기를

더 하자니 차마 우스워 못 하겠다. 이런 꼴을 볼작시면, 나 혼자 보기 아깝도다.’

이런 거동 저런 거동 다 본 연후에, 회계 비장 의복 벗어 놓고 여자 의복 다시 입고 웃으면서,

“이 멍청아!”

하며 춘풍의 등을 밀치면서 하는 말이,

“안목이 그다지 무도한가?”

하니 춘풍이 어이없어 하는 말이,

“이왕에 자네인 줄 알았으나, 의사(意思)를 보려고 그리 했지.”

하고, 그날 밤에 부부 둘이 원앙금침 펼쳐 덮고 누웠으니 아주 그만 제법이로구나.

그렇저렇 자고 나서 그 이튿날 호조 돈을 다 바치고, 상급한 수만 냥 재산으로 노비 전답 다시 장만하니, 의식이 풍족하고 유자생녀*하여 화목하게 평생 화락이 좋을시고, 그런 것 없이 지냈구나.

- 작자 미상, 「이춘풍전(李春風傳)」

***고찰**: 죄인에게 매질을 할 때 형리를 감시하면서 날날이 살피어 몹시 치게 하던 일.

***자모지례**: 1년간의 이자가 원금의 2할 이내가 되도록 정한 이자율.

***무가내하**: 달리 어찌할 수 없음.

***유자생녀**: 아들딸을 많이 낳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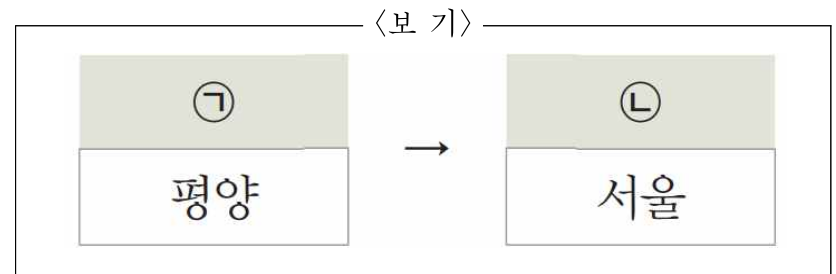
21.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문’은 ‘춘풍의 아내’가 ‘춘풍’을 잡아들이는 근거가 되는 소재이다.
- ② ‘의복’은 ‘춘풍의 아내’가 자신의 본래 모습을 숨기는 데에 쓴 도구이다.
- ③ ‘헛 사발’은 ‘춘풍’이 돈을 탕진하여 몰락했던 현실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 ④ ‘춘풍이 가져온 돈’은 ‘추월’이 사건의 전모를 깨달아 자성하는 계기가 된 소재이다.
- ⑤ ‘형틀’은 ‘비장’이 자신의 신분을 활용하여 ‘춘풍’과 ‘추월’을 응징하는 데에 사용한 도구이다.

22. [A]에 드러난 ‘비장’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명분을 내세워 상대방의 처지를 위로하고 있다.
- ② 과거의 처지를 언급하며 상대방을 압박하고 있다.
- ③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조언하고 있다.
- ④ 다른 이를 핑계로 들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다.
- ⑤ 앞일을 추측하면서 상대방이 하려는 일을 만류하고 있다.

23. <보기>는 윗글의 공간 변화를 도식화한 것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 ㉡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춘풍’이 돈을 탕진하는 공간이고, ㉡은 탕진한 돈을 되찾는 공간이다.
- ② ㉠은 ‘춘풍의 아내’가 ‘춘풍’과 재회하는 공간이고, ㉡은 다시 이별하는 공간이다.
- ③ ㉠은 ‘춘풍’과 ‘추월’의 관계가 끊어진 공간이고, ㉡은 그 관계가 연결된 공간이다.
- ④ ㉠은 ‘춘풍의 아내’가 신분을 드러내지 않는 공간이고, ㉡은 그 신분을 밝히는 공간이다.
- ⑤ ㉠은 ‘춘풍’이 ‘비장’에게 굴욕을 당하는 공간이고, ㉡은 ‘춘풍’이 설욕을 하는 공간이다.

2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작품은 조선 후기 가부장제에 대한 풍자와 적극적인 여성상을 담은 소설로 평가받는다. 집안의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부족한, 방탕한 남성을 적극적인 여성이 변화시키는 과정을 담고 있다. 방탕한 남성은 자신을 시련에 빠뜨린 후 인정 없이 하대하는 인물을 만나 현실을 인식하지만 그것만으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성은 노력을 통해 관원으로 변장할 수 있게 되고, 아내가 아닌 관원으로 변장한 그녀는 그 권위를 통해 남성이 일으킨 문제를 해결한다. 문제가 해결된 후에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남성에게 여성은 자신이 문제를 해결한 주체임을 밝힘으로써 깨달음을 주고 남성을 변화시켜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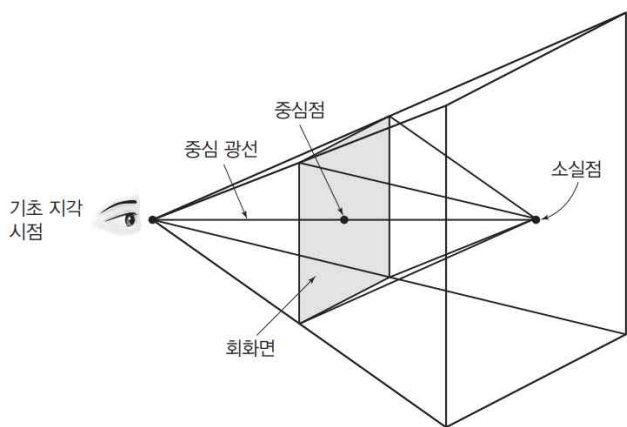
- ① 빌린 돈을 탕진한 ‘춘풍’의 모습에서 책임감이 부족한 남성의 전형을 볼 수 있군.
- ② ‘호조 돈’을 모두 탕진하게 한 후 ‘춘풍’을 고생시킨 ‘추월’은 ‘춘풍’이 각박한 현실을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했군.
- ③ ‘춘풍’이 겪는 어려움을 ‘관원’으로 변장하여 해결한 ‘춘풍의 아내’는 조선 후기 적극적인 여성상을 보여 준 인물로 볼 수 있군.
- ④ ‘비장’이 자신의 아내임을 알게 된 후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 모습에서 ‘춘풍’이 과거의 무책임한 모습에서 변화한 것을 볼 수 있군.
- ⑤ ‘춘풍의 아내’가 ‘추월’을 ‘비장’의 권위로 벌하지만 결국 풀어 준다는 점에서 철없는 남성을 성장으로 이끄는 계기를 마련한 인물에 대한 배려를 볼 수 있군.

[25~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회화에서 입체적인 사물을 현실감 있게 표현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입체를 현실감 있게 표현하는 방법인 원근법 중 대표적인 것이 선 원근법이다. 선 원근법은 소실점과 소실점을 향해 뻗어 나가는 직선들로 평면에 공간적 깊이가 나타나도록 표현하는 방식이다. 르네상스 시기의 미술가들은 일상적 경험을 통해 멀리 있는 것은 작게 보이고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보인다는 사실을 회화에 반영하는 것을 넘어, 재현의 정확도를 정밀히 계측하고 증명하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했다. 그들은 평면 위에 삼차원성을 부여하여 세계를 시각적으로 보다 정확히 재현해 내고, 보이는 대상을 평면에 그대로 옮기기 위해 선 원근법이라는 회화의 공간 재현 원리를 개발했다.

알베르티는 고대 그리스의 광학 이론과 기하학적 가정을 근거로 선 원근법을 정립한 인물이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우리 눈에서 확산되는 시각 광선이 대상을 향해 직선으로 뻗어 나가서 대상에 닿음으로써 시각 이미지가 산출되는 것으로 보았다. 알베르티는 우리가 사물을 볼 때 뻗어 나가는 광선들을 세 가지로 나누었다. 가장 바깥의 시각 광선인 경계 광선을 통해 외곽의 선이 만들어지고, 그 내부의 수많은 광선인 중앙 광선들을 통해 색채를 인지한다고 보았는데, 중앙 광선 중 회화면과 직각을 이루는 하나의 광선을 중심 광선이라 했다. 그는 시각 활동에서 중심 광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여겼다. 그리고 관찰자의 한쪽 눈을 꼭짓점으로 하여 뻗어 나가는 시각 광선들을 통해 시각 피라미드가 형성되고, 시각 피라미드를 수직으로 관통하는 한 지점에 유리창과 같은 일종의 투과막을 세워 놓은 후 거기에 들어온 장면을 그대로 평면으로 옮겨 나타내면 실제 세계를 완벽히 재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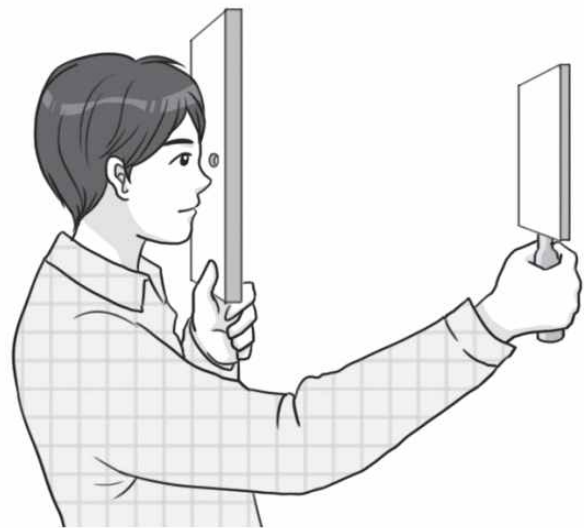
알베르티는 회화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한쪽 눈에 들어오는 화면에 변화가 없도록 기초 시각 시점*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선 원근법에서 중심 광선은 회화면과 중심 광선이 직교하는 지점인 중심점을 지나 소실점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설명했다. 회화면을 구성하는 기초 시각 시점과 중심점, 소실점은 일직선상에 놓여 있는 것이다. 또한 기초 시각 시점은 그림의 관람자가

화가가 묘사하고자 한 것과 가장 유사한 상을 시각적 환영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시점이다.

물론 입체를 똑같이 평면에 재현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선 원근법은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토대 위에서 정립된 것이기에 실제의 시각 경험과 ①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선 원근법을 충실히 따른 그림일지라도 그것은 정교한 방식에 따라 입체를 이차원적으로 재현한 시각적 환영일 뿐이고, 이를 우리는 사실처럼 보이는 그림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②선 원근법의 결함을 깨닫고 있었던 당대의 다빈치는 실제의 시각 경험에 보다 부합하는 원근법으로서 멀리 있는 사물을 더 흐릿하게 그리는 공기 원근법을 개발하여 작품에 적용하기도 했다.

*기초 시각 시점: 선 원근법의 원리에 따라 그림을 그릴 때, 화가의 한쪽 눈이 놓이는 곳.

(나)



르네상스 시기의 브루넬레스코는 선 원근법의 원리를 사람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한 인물이다. 그는 선 원근법에 따라 성 요한 세례당과 주변 풍경을 한 번의 길이가 30cm 정도인 정방형의 작은 화폭에 그리고 그 복판에 작은 구멍을 뚫었다. 그리고 자신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이 거울을 통해 그 작은 그림을 보도록 했다. 그의 지시는 아래와 같았다.

브루넬레스코는 먼저 사람들을 세울 지점과 세례당 건물 사이의 거리뿐만 아니라 그림을 보는 눈의 높이와 시선의 방향까지도 고정될 수 있도록 그림을 관찰할 지점을 정했다. 브루넬레스코는 자신이 그림을 그렸던 지점인 기초 시각 시점에서의 풍경을 사람들도 똑같이 보도록 서 있는 위치와 관찰자의 눈높이 등을 조정한 것이다. 기초 시각 시점을 확실히 해 두지 않으면 제대로 된 시각적 환영을 경험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을 제대로 세우고 나서 브루넬레스코는 사람들이 한 손에 그림을 들고 한쪽 눈을 그림 복판에 뚫은 구멍의 뒷면에 대도록 한 후, 다른 손은 거울을 잡고 팔을 앞으로 뻗어 그림과 거울이 나란히 위치하도록 했다. 그리고 그림

복판의 구멍과 거울의 중심을 잇는 선이 거울면에 직각으로 닿을 수 있도록 높이를 잘 조정한 후, 그림 복판에 난 구멍에 눈을 바짝 붙이고 거울을 보게 했다. 그렇게 하여 사람들의 눈에 거울에 비친 자신의 그림이 들어오도록 한 것이다.

브루넬레스코는 사람들에게 거울에 비친 세레당 그림과 실물 세레당을 차례로 비교하게 했다. 그림의 복판에 뚫린 구멍을 통해서 거울에 비친 그림을 보던 사람들은 구멍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한 손에 든 거울을 잠시 젖히고 실물 세레당을 보았다. 실제로 당시에 브루넬레스코의 지시에 따라 그림을 직접 보았다고 전해지는 그의 제자 마네티는 선 원근법에 입각해 그려진 그림의 상과 실물은 윤곽선, 형태, 비례 관계에 이르기까지 빈틈없이 일치했다고 기록했다.

25. ‘알베르티’와 ‘브루넬레스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알베르티는 선 원근법의 원리를 이론적으로 정립했고, 브루넬레스코는 선 원근법의 원리를 실제로 구현했다.
- ② 알베르티는 선 원근법을 독자적으로 주장했고, 브루넬레스코는 선 원근법의 적절성을 여러 사람과 따져 보았다.
- ③ 알베르티는 선 원근법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증명했고, 브루넬레스코는 선 원근법의 논리를 경험적으로 터득했다.
- ④ 알베르티는 선 원근법을 당대인들에게 가르쳤고, 브루넬레스코는 선 원근법의 실연 조건을 알베르티를 통해 배웠다.
- ⑤ 알베르티는 선 원근법을 의심 없이 수용했고, 브루넬레스코는 선 원근법에 반영된 이론을 맹신하는 것을 경계했다.

26. (가)와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브루넬레스코가 사람들의 그림 관찰을 위해 정해 둔 지점은 자신이 성 요한 세레당 그림을 그렸던 지점이었겠군.
- ② 알베르티는 면밀하게 선 원근법이 적용되어 그려진 회화는 그것이 나타내고자 하는 실제와 정확하게 비례한다고 보았겠군.
- ③ 브루넬레스코는 그림을 그릴 때, 자신이 바라본 성 요한 세레당과 주변 풍경을 그대로 그리지 않고 좌우를 반전시켜 그렸겠군.
- ④ 브루넬레스코는 사람들이 그림 뒷면의 구멍에 눈을 댈 때 그림의 구멍과 거울의 중심을 잇는 선이 거울면에 직각이 되게 하도록 지시했겠군.
- ⑤ 알베르티가 선 원근법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는 과정에서 시각 광선을 세 가지로 분류한 것은 르네상스 시기의 과학적 발견을 토대로 한 가정이겠군.

27. (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선 원근법을 최초로 회화에 적용한 인물은 누구인가?
- ② 선 원근법보다 입체를 더 현실감 있게 보여 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③ 입체를 평면에 재현하는 방식으로서 선 원근법이 후대의 미술에 끼친 영향은 어떠한가?
- ④ 선 원근법 이외에 삼차원을 이차원으로 나타내기 위한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 ⑤ 일상적 시각 경험과 선 원근법으로 그려진 그림의 유사도를 비교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28. <보기>는 (가)를 읽고 학생이 정리한 내용이다.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끼리 묶인 것은?

— <보 기> —

시각 피라미드에서 ㉠부터 ㉣까지의 거리는 곧 화가가 회화에 나타내고자 하는 깊이가 되고, ㉣을 꼭짓점으로 하는 작은 피라미드는 회화가 환기하는 환영의 공간이 된다.

	㉠	㉡	㉢
①	중심점	소실점	소실점
②	중심점	소실점	기초 시각 시점
③	기초 시각 시점	중심점	기초 시각 시점
④	기초 시각 시점	중심점	소실점
⑤	기초 시각 시점	소실점	기초 시각 시점

29. <보기>는 ㉠에 대한 다빈치의 견해를 간략히 나타낸 것이다. 윗글과 <보기>를 통해 파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그림에서 색이 칠해진 세 공의 지름은 모두 같고, 중앙의 공을 기준으로 양옆에 놓인 다른 두 공의 시작점으로부터의 거리는 같다. 시작점에서 각 원에 두 개의 접선을 그리고 각 원의 접선이 이루는 각도를 각각 측정하면 $\alpha = \gamma < \beta$ 이다. 시작점과 중앙의 공의 중심을 연결한 점선에 수직이 되도록 시작점과 세 공 사이에 직선을 그리고 그 선분의 길이를 비교하면 $AB = EF > CD$ 가 된다.

- ① <보기>의 점 A부터 점 F를 연결한 선분은 선 원근법에서의 회화면과 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선 원근법에 따라 <보기>의 세 공을 그리는 경우 기초 지각 시점에서 멀리 있는 공을 더 크게 그리게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군.
- ③ 일상적 경험을 통한 직관적 지식을 고려하면 <보기>의 세 공을 눈으로 볼 때는 중앙에 있는 것을 가장 큰 것으로 파악하겠군.
- ④ <보기>를 통해 인간의 일상적 지각에서 사물의 크기는 각도에 의해서도 좌우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겠군.
- ⑤ 선 원근법에서는 기초 지각 시점의 높이에 따라 화면의 깊이가 달라짐을 나타내기 위해 <보기>와 달리 두 눈을 통해 본 대로 장면을 재현하겠군.

30. 밑줄 친 단어의 문맥적 의미가 ㉠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과연 그 답이 맞는지 더 생각해 보기로 하자.
- ② 다시 생각해 보니 아까 내가 한 말이 맞는다.
- ③ 이 안경이 바로 아까 그 학생 것이 맞을 것이다.
- ④ 나의 의견이 그의 생각과 맞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 ⑤ 가게에서 치수가 내 몸에 맞는 옷이 없어서 사지 못했다.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의 소년 시절은 은빛 바다가 엷보이는 그 긴 ㉠언덕길을 어머니의 상여와 함께 꼬부라져 돌아갔다.

내 첫사랑도 그 길 위에서 조약돌처럼 집었다가 조약돌처럼 잃어버렸다.

그래서 나는 푸른 하늘빛에 호져*때 없이 그 길을 넘어 ㉡강가로 내려갔다. ㉢노을에 함복 자줏빛으로 젖어서 돌아오곤 했다.

㉣그 강가에는 봄이, 여름이, 가을이, 겨울이 나의 나이와 함께 여러 번 다녀갔다. 까마귀도 날아가고 두루미도 떠나간 다음에는 누런 모래둔과 그리고 ㉤어두운 내 마음이 남아서 몸서리쳤다. 그런 날은 향유 감기를 만나서 돌아와 앉았다.

할아버지도 언제 난지를 모른다는 마을 밖 그 낡은 ㉥버드나무 밑에서 나는 지금도 돌아오지 않는 어머니, 돌아오지 않는 계집애, 돌아오지 않는 이야기가 돌아올 것만 같아 멍하니 기다려 본다. 그러면 ㉦어느새 어둠이 기어 와서 내 뺨의 얼룩을 씻어 준다.

- 김기림, 「길」

*호져: 혼자.

(나)

일찍이 어머니가 나를 바다에 데려간 것은

㉠소금기 많은 푸른 물을 보여 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바다가 뿌리 뽑혀 밀려 나간 후

㉡꿈틀거리는 검은 빨발 때문이었다

빨발에 위험을 무릅쓰고 퍼덕거리는 것들

숨 쉬고 사는 것들의 힘을 보여 주고 싶었던 거다

먹이를 건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왜 무릎을 꿇는 것일까

깊게 허리를 굽혀야만 할까

생명이 사는 곳은 왜 저토록 쓸쓸한 맨살일까

일찍이 어머니가 나를 바다에 데려간 것은

저 **무위(無爲)한 해조**음을 들려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물 위에 집을 짓는 새들과

각혈하듯 노을을 내뿜는 포구를 배경으로

성자처럼 빨발에 고개를 숙이고

먹이를 건지는

슬프고 경건한 손을 보여 주기 위해서였다

- 문정희, 「울포의 기억」

3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하면서 대상을 포착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자연물에 화자나 글쓴이의 감정을 이입하는 방식으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나)는 공간의 이동에 따른 풍경 변화를 묘사하고 있다.

32. (가)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와 ㉡는 과거의 추억이 서려 있는 공간이다.
- ② ㉢는 상실을 겪었던 공간이고, ㉣는 상실의 슬픔으로 인해 방황하는 공간이다.
- ③ ㉤는 세월이 흘러갔음을 나타내는 공간이다.
- ④ ㉠는 글쓴이가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는 공간이다.
- ⑤ ㉠는 글쓴이가 미래의 삶에 대한 희망을 바탕으로 대상의 부재로 인한 슬픔을 극복하려는 공간이다.

33.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어머니'가 화자를 '바다'로 데려간 것이 '빨밭'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들과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관찰하는 계기가 된 것이로군.
- ② '빨밭에 위험을 무릅쓰고 퍼덕거리는 것들'은 생명력이 넘치는 삶의 공간으로서의 '빨밭'의 성격을 부각하고 있군.
- ③ 화자는 자신의 삶을 '무위한 해조음'에 빗대어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는 성찰을 하고 있군.
- ④ 빨밭에서 먹이를 건지는 사람들을 '성자처럼'이라 표현하여 그들의 노동을 숭고하게 여기는 마음을 표출하고 있군.
- ⑤ 삶에 대한 화자의 성찰은 '빨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손이 '슬프고 경건'하다는 깨달음으로 이어지고 있군.

34. <보기>와 같은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을 감상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선생님: 문학 작품에서 이미지는 언어를 통해 드러나는 선명한 인상으로서,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더욱 구체화하는 동시에 그 안에 의미를 담아 글쓴이나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환기합니다. 또한 작품 전체의 주제 의식을 드러내는 장치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가)와 (나)에서 선명한 색채 이미지의 활용이 나타난 부분을 찾아서 그 의미나 효과에 대해 말해 보도록 합시다.

- ① ㉠: '노을'의 '자줏빛'은 글쓴이의 그리움과 쓸쓸함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 ② ㉡: '어두운'은 글쓴이의 마음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물리적 실체가 아니라 심리적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③ ㉢: '어느새 어둠이 기어 와서'는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④ ㉣: '푸른 물'은 푸른색의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생명력이 충만한 공간으로서의 바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⑤ ㉤: 인간을 포함한 온갖 생물의 삶의 터전이 되는 빨밭이 띠는 색깔을 '검은'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언어와 매체)」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시오.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어의 합성어에서는 종종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난다. 사잇소리 현상은 두 가지 음운 변동 현상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하나는 경음화 현상으로서 뒤 요소의 첫소리가 평음에서 경음으로 교체되는 것이다. ‘봄’과 ‘비’가 합쳐진 합성어 ‘봄비’가 [봄비]가 아니라 [봄뻬]로 소리 나거나 ‘초’와 ‘불’이 합쳐진 합성어 ‘촛불’이 [초불]이 아니라 [초뻬]로 소리 나는 현상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때 앞의 말에 받침이 없으면 ‘ㄷ’ 소리가 첨가되기도 한다. 즉 ‘촛불’은 [초뻬]뿐 아니라 [촛뻬]로도 발음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앞의 말과 뒤의 말 사이에 ‘ㄴ’ 혹은 ‘ㄴㄴ’ 소리가 첨가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코’와 ‘물’이 합쳐진 ‘콧물’은 [코물]이 아니라 [콘물]로 소리 나고, ‘나무’와 ‘잎’이 합쳐진 ‘나무잎’은 [나무입]이 아니라 [나무닙]으로 소리 난다.

그런데 사잇소리 현상은 합성어에서 늘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다. 예를 들어 ‘물고기[물꼬기]’에서는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지만, ‘불고기[불꼬기]’에서는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심지어는 같은 의미의 말이라도 세대나 지역에 따라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기도 한다. 예를 들어 ‘김밥’을 노년 세대에서는 간혹 [김 : 밥]으로 발음하기도 하지만, 대개의 사람들은 [김 : 뻬]으로 발음한다. 어떤 경우에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고 어떤 경우에 일어나지 않는지는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다.

다만, 앞의 말이 뒤의 말에 대해 ‘시간, 장소, 용도/목적, 무정물 소속 대상’의 의미를 지니면 사잇소리 현상이 잘 일어나고, 앞의 말과 뒤의 말이 대등한 관계인 경우 혹은 앞의 말이 뒤의 말에 대해 ‘모양, 재료, 수단/방법, 유정물 소속 대상’의 의미를 지니면 사잇소리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위의 ‘물고기’는 ‘물’이 ‘고기’가 사는 장소이므로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난 것이고, ‘불고기’는 ‘불’이 ‘고기’를 요리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나무잎’에서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잎’이 소속된 ‘나무’가 무정물인 식물이기 때문이고, ‘새우등’에서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등’이 소속된 ‘새우’가 유정물인 동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적 조건에는 다소의 예외도 있다.

사잇소리 현상은 앞 음절의 끝소리가 ‘ㄱ, ㄷ, ㅂ’일 때 그 뒤에서 평음이 자동적으로 경음화하는 현상과는 구별된다. 예를 들어 ‘늑대[늑뻬], 솟다[솟뻬], 접시[접씨]’에서는 앞의 ‘ㄱ, ㄷ, ㅂ’소리 때문에 뒤의 평음이 경음으로 바뀐다. 이는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조건인 합성어 형성과도 상관없고 의미적 조건과도 상관없이 언제나 일어나는 현상이다.

사잇소리 현상을 앞말의 받침에 사이시옷을 적음으로써 표기에 반영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앞 요소가 모음으로 끝나서 사이시옷을 적을 자리가 있어야 한다. 둘째, 합성된 앞뒤 요소의 어종이 적어도 하나는 한자어가 아니고 고유어이어야 한다. 예컨대 ‘차이(差異)’와 ‘점(點)’이 합성된 ‘차이점’은 발음이 [차이뻬]이지만 ‘차잇점’으로 적지 않는다. 다만, 고유어가 들어 있는 합성어라도 다른 한 요소가 외래어일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다.

35.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논밭[논반]’에서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논’과 ‘밭’이 대등한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군.
- ② ‘책가방[책까방]’에서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난 것은 ‘책’이 담기는 장소가 ‘가방’이기 때문이군.
- ③ ‘반달[반 : 달]’과 ‘보름달[보름뻬]’이 사잇소리 현상의 유무가 다른 것은 ‘반달’의 ‘반’은 모양을 나타내고 ‘보름달’의 ‘보름’은 시간을 나타내기 때문이군.
- ④ 외래어인 ‘피자’와 고유어인 ‘집’이 합쳐진 합성어에서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피자집’으로 적겠군.
- ⑤ ‘전세방(傳貰房)[전세뻬]’과 ‘전셋집(傳貰집)[전세뻬/전센뻬]’에서 사이시옷 유무가 다른 것은 ‘방’과 ‘집’의 어종이 다르기 때문이군.

36.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사잇소리 현상이 속하는 음운 변동 유형이 모두 나타난 것은?

— <보 기> —

음운 변동은 크게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교체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것이고, 탈락은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것이다. 첨가는 없던 음운이 생기는 것이고, 축약은 두 음운이 합쳐져 한 음운으로 바뀌는 것이다.

- ① 굽는다[궁는다]
- ② 갇히다[가치다]
- ③ 앞사람[압싸람]
- ④ 훌이불[훈니불]
- ⑤ 흙바람[흑빠람]

37. <보기>의 ㉠~㉤의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 그가 우리를 속였음이 분명하다.
 ㉡ 그들이 황무지를 옥토로 만들었다.
 ㉢ 형이 종이비행기를 접어서 날렸다.
 ㉣ 아침에 예쁜 새가 창가로 날아왔다.
 ㉤ 친구가 공원에서 내게 선물을 주었다.

- ① ㉠에서 '그가'는 안은문장의 주어이고 '우리를 속였음이 분명하다'는 서술절이다.
- ② ㉡에서 '옥토로'를 빼도 원래와 같은 의미의 문장이 성립되므로 '만들다'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 ③ ㉢은 '형이 종이비행기를'이 '날렸다' 앞에서 생략된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문장이다.
- ④ ㉣은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씩만 나와 있으므로 겹문장이 아니라 홀문장이다.
- ⑤ ㉤의 '공원에서'는 서술어가 꼭 필요로 하는 성분이 아니므로 필수적 부사어가 아니다.

38. <보기>의 ㉠~㉤에 대한 탐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서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

	어간	어미			다른 예
		-고	-으니	-아/-어	
㉠	잠그-	잠그고	잠그니	잠가	답그다
㉡	모르-	모르고	모르니	몰라	가르다
㉢	이르-	이르고	이르니	이르러	푸르다
㉣	파랑-	파랑고	파라니	파래	하양다
㉤	짓-	짓고	지으니	지어	잇다

- ① ㉠: '잠그-'에 '-아'가 결합하면 '잠가'라고 적어야겠군.
- ② ㉡: '가르-'에 '-아지다'가 결합하면 '갈라지다'라고 적어야겠군.
- ③ ㉢: '푸르-'에 '-어'가 결합하면 '푸르러'라고 적어야겠군.
- ④ ㉣: '하양-'에 '-으니'가 결합하면 '하양니'라고 적어야겠군.
- ⑤ ㉤: '잇-'에 '-어서'가 결합하면 '이어서'라고 적어야겠군.

39. <보기>의 ㉠~㉤을 바탕으로 중세 국어의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나랏 말쓰미 中 國 國 到 來 文 文 字 字 體 로 서 르 스 몃 디
 ㉡아니홀썩 이런 전츠로 ㉢어린 百 姓 姓 性 이 니 르 고 저 흥 배
 이셔도 ㅁ ㅅ ㅈ 내 제 ㅍ 들 시 러 ㅍ 디 몃 흥 ㉣노미 하니라 내 ㉤
 이 를 爲 興 興 야 어엿비 너겨 새 로 스 물 여 들 字 體 를 鳴 7 노 니
 사 립 마 다 히 ㅅ 수 비 니 겨 날 로 ㅍ ㅁ ㅅ 安 安 安 安 ㅅ ㅎ 고 저 흥
 쓰 르 미 니 라
 - 『훈민정음』 언해, 세조 5년(1459)

[현대어 풀이]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위하여 가엾게 여겨 새로 스물여덟 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 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 ① ㉠에서 'ㅅ'은 현대 국어의 '의'에 해당하는 관형격 조사이군.
- ② ㉡에서 '-르썩'은 까닭이나 근거를 나타내는 어미이군.
- ③ ㉢에서 '-니'은 앞말이 뒤에 오는 말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하는 어미이군.
- ④ ㉣에서 'ㅣ'는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에 결합하는 주격 조사이군.
- ⑤ ㉤에서 'ㄹ'은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에 결합하는 목적격 조사이군.

40. ㉠~㉤을 바탕으로 매체의 정보 구성과 유통 방식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신문 매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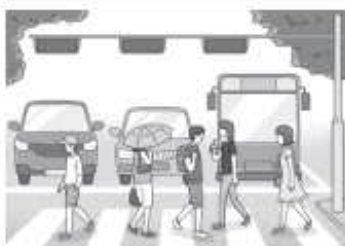
2000년 8월 0일 △△일보 36면

이어지는 폭염, 전국 불볕더위

오늘 기상 정보

최저/최고 기온(°C) 강우는 강수 확률(오전/오후, %)	서울 ☁ 26/36 (20/0)	인천 ☁ 25/35 (20/0)	수원 ☁ 25/35 (20/0)	춘천 ☁ 25/36 (20/0)	
강릉 ☀ 26/37 (0/0)	청주 ☀ 25/36 (0/0)	세종 ☀ 25/35 (0/0)	대전 ☀ 25/36 (0/0)	전주 ☀ 25/36 (0/0)	광주 ☀ 25/36 (0/0)
목포 ☀ 25/35 (0/0)	대구 ☀ 26/39 (0/0)	포항 ☀ 26/38 (0/0)	울산 ☀ 25/36 (0/0)	부산 ☀ 25/35 (0/0)	제주 ☀ 27/35 (0/0)

㉠ 텔레비전 매체

[영상]	[음성]
 <p>'대프리카' 39도까지 올랐다</p>	<p>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많이 더우셨죠? 대구가 39도까지 올라가는 등 전국이 찜통더위에 시달렸습니다.</p>
	<p>기자: 긴 장마가 끝난 후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는 낮 기온이 최고 39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대프리카'로 불리는 대구의 한낮 모습인데요, 아스팔트 위를 걷는 시민들의 모습에서 무더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내려진 상태이고, 습도까지 높아 체감 온도는 40도 내외로 매우 높습니다. 이런 더위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p>

㉡ 인터넷 매체



블로그 12개의 글 목록 열기

아름다운 요리 이야기

공꾸는 요리사 URL 복사 +이웃 추가

[나의 일상] 대프리카 날씨 체험

대구 현재 기온 39도, 체감 온도 50도?
어제도 38도 찍었는데 이 기세라면 내일은 40도 찍을 듯요. 대프리카의 더위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제가 직접 아스팔트 위에서 달걀프라이를 해 봤어요.



과연 달걀프라이는 가능할 것인까?
대프리카, 달걀이 익는 순간...

진짜 프라이됩니다~~~~~ㅋㅋ

기상청 날씨가 궁금하다면 요기로!
<https://www.weather.go.kr/>

#너무더워 #대프리카날씨실험 #달걀프라이방법

♡ 공감 24 | 💬 댓글 쓰기

댓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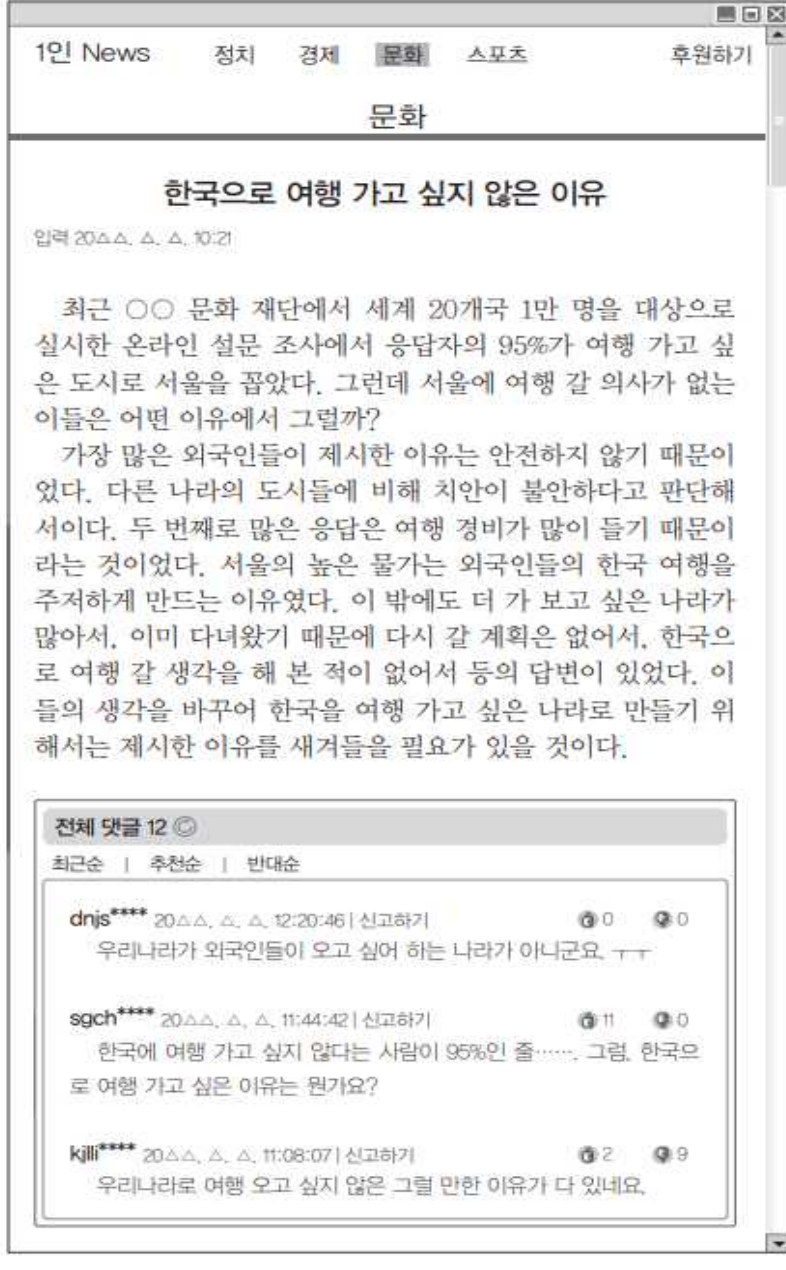
최근순 | 추천순 | 반대순

↳님의 실험 정신에 감탄! 진짜 대프리카 맞음 ㅋ

- ㉠은 제한된 지면 때문에 상세한 설명을 하기 어렵지만 날씨를 요약한 표제와 그림 등을 간략하게 제시하여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 ㉡은 더위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현장 화면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므로 ㉠에 비해 정보가 실재감 있게 전달된다.
- ㉠과 ㉡은 날씨를 포함한 시의성 있는 대량의 정보를 일방적으로 대중에게 전달한다는 점에서 ㉢에 비해 영향력과 파급력이 크다.
- ㉢은 영상, 문자 언어, 하이퍼링크, 해시태그 등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정보를 구성하므로 ㉠, ㉡에 비해 정보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높고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다.
- ㉢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에 비해 정보 제공자가 제한되어 있지 않은 개방적 특성을 보이며 정보의 유통이 쌍방향적이다.

[41~42] (가)는 '매체 자료의 수용'을 주제로 한 수업에서 교사가 제시한 자료이고, (나)는 이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찾은 자료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교사가 제시한 자료



1인 News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후원하기

문화

한국으로 여행 가고 싶지 않은 이유

입력 20△△. △. △. 12:01

최근 ○○ 문화 재단에서 세계 20개국 1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95%가 여행 가고 싶은 도시로 서울을 꼽았다. 그런데 서울에 여행 갈 의사가 없는 이들은 어떤 이유에서 그럴까?

가장 많은 외국인들이 제시한 이유는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다른 나라의 도시들에 비해 치안이 불안하다고 판단해서이다.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은 여행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서울의 높은 물가는 외국인들의 한국 여행을 주저하게 만드는 이유였다. 이 밖에도 더 가 보고 싶은 나라가 많아서, 이미 다녀왔기 때문에 다시 갈 계획은 없어서, 한국으로 여행 갈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어서 등의 답변이 있었다. 이들의 생각을 바꾸어 한국을 여행 가고 싶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제시한 이유를 새겨들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체 댓글 12

최근순 | 추천순 | 반대순

dnjs**** 20△△. △. △. 12:20:46 신고하기 0 0
우리나라가 외국인들이 오고 싶어 하는 나라가 아니군요. ㅏㅏ

sgch**** 20△△. △. △. 11:44:42 신고하기 11 0
한국에 여행 가고 싶지 않다는 사람이 95%인 줄..... 그럼, 한국으로 여행 가고 싶은 이유는 뭔가요?

kjll**** 20△△. △. △. 11:08:07 신고하기 2 9
우리나라로 여행 오고 싶지 않은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네요.

(나) 학생들이 찾은 자료

㉠ 카드 뉴스



[#1]



[#2]



[#3]



[#4]

㉡ 잡지

[월간 여행] 이달의 발견

외국인 94% 다시 가고 싶은 도시, 서울 그리고.....

○○ 관광 재단이 올해 상반기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5,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10명 중 9명이 서울을 재 방문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관광객은 주로 여가·휴가(55.3%)를 목적으로 서울을 방문했고 가장 많이 찾은 곳은 명동(83.8%)이었으며, 쇼핑(92.1%)과 식도락(78.9%)을 즐긴 것으로 분석됐다. 쇼핑 장소는 시내 면세점(57.0%)이 가장 많았고, 전통 시장(50.5%)도 많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관광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66점으로 비교적 높았다.

그런데 한국 관광 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1,000건 이상의 외국인 불편 신고가 접수된다고 한다. 불편 신고는 택시 이용이나 쇼핑에 관한 것이 주를 이루는데 이 부분이 개선되어 더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다시 찾기를 바란다. 또한 외국인들이 다시 찾는 장소와 목적이 서울에서의 쇼핑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 곳곳에서 한국만의 맛과 멋을 발견하고 즐기기를 위한 것이 되기를 바란다.

41. (가)의 기사에 대한 학생의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실과 의견이 혼재되어 있어 필자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의견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기사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② 기사의 내용이 표제를 타당하게 뒷받침하고 상반되는 의견을 공정하게 담고 있지만 독자가 사실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 ③ 본문이 객관적 사실보다 주관적 견해를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어 독자가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표제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 ④ 기사는 사실에 근거하며 공정성을 지녀야 하는데 표제와 본문이 내용의 일부만 부각하고 있어 독자가 특정 관점을 편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 ⑤ 인터넷은 어떤 매체보다 빠르게 정보를 교류하고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데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정보를 사실로 보도하고 있어 독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우려가 있다.

42. (가), (나)를 바탕으로 매체 읽기 방법에 대해 제안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댓글에서 독자에 따라 기사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기도 하고 다른 측면에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아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판단하려는 태도가 요구된다.
- ② (가), (나)는 모두 외국인들의 한국 여행을 다루고 있지만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르게 기술되고 있으므로 매체 자료를 읽을 때는 관점에 따른 내용의 타당성을 따져가며 읽어야 한다.
- ③ (나)의 ㉠과 ㉡에 제시된 외국인들의 한국 여행에 대한 내용을 고무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들의 여행이 쇼핑과 먹거리에 집중되어 있음을 지적할 수도 있으므로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면서 매체 자료의 의미를 분석해야 한다.
- ④ 한국 여행에 대한 외국인들의 부정적인 의견을 다룬 (가)와 긍정적 반응을 다룬 (나)를 종합하여 여행의 질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매체 자료를 주체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 ⑤ (나)에서 ㉡의 관점으로 보면 ㉠의 패션과 화장품에 집중된 관광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들의 한국 방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매체에서 유사한 관점을 지닌 자료를 찾아 살펴볼 필요가 있다.

[43~45] 다음은 유시시(UCC) 동영상 제작과 관련된 수업 활동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모둠의 기획안

- 제목: 혼자는 싫어요
- 기획 의도: 학교 내 따돌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학생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자세를 지니도록 함.
- 수용자 분석
 - 수업 카페에 접속하는 우리 학교 학생 및 학부모
 - 따돌림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 스토리보드

영상		삽입 글 또는 음성/음향
화면	화면 구성 및 전개	
혼자는 싫어요 과연 우리 아이는?	배경은 어둡게, 제목은 선명하게 함.	제목 삽입, 느리고 우울한 배경 음악
	TV 옆에서 아나운서가 말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십대들의 따돌림 문제가 심각한"
	따돌림 사례를 재연한 영상	
	따돌림에 관한 통계 자료	출처, 설명 삽입
	가해, 피해 학생들의 인터뷰	"그 친구에게 왜 그랬나요?", "따돌림을 당할 때 심정이 어땠나요?" 등
	아나운서의 정리 마무리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우리 주위, 당신의 자녀에게도"

(나) 제작한 유시시(UCC) 동영상

※ 단, 아래는 영상의 주요 화면과 음성/음향을 나타낸 것이며, 번호는 진행 순서임.

[1] 느리고 우울한 배경 음악	[2] 제목
[3] 부제	[4] - 타자 치는 소리 삽입 - 소리에 맞춰 글자가 차례대로 나타남.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십대들의 따돌림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주위의 무관심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6] 저희는 그 현실을 카메라에 담아 봤습니다.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요?
[7] 청소년 일탈 사례 재연	[8] 따돌림 사례 재연
[9] 통계 자료 1 설명	[10] 통계 자료 2 설명

43. 다음은 (가)를 바탕으로 (나)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모둠 회의의 내용이다.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따돌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실제 사례를 재연한 영상과 따돌림에 관한 여러 통계 자료를 연달아 제시하는 것이 좋겠어.
- ② 영상을 제작할 때 통계 자료의 출처를 밝힐 뿐만 아니라 재연의 내용이 우리 학교나 특정 학생과 관련이 없음을 알리는 화면을 추가하는 것이 좋겠어.
- ③ 시청자가 학교 내 따돌림 문제의 원인과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피해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해자와 인터뷰한 내용을 제공하는 것이 좋겠어.
- ④ 영상을 보는 사람이 따돌림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따돌림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한 글과 음성을 추가할 필요가 있겠어.
- ⑤ 첫 화면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한 학생의 웅크린 모습을 화면 한 칸에 배치하여 외로움을 부각하고 다음 화면에 '혼자는 싫어요'라는 제목을 제시하여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자.

44. 다음은 교사가 제시한 유시시(UCC) 평가 기준표이다. 이를 참고하여 (나)를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항목	평가 기준
정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에 부합하는 내용을 다루었는가? • 의도가 왜곡되거나 초점이 모호하지는 않은가? • 수용자가 주제에 동의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가? • 글과 영상, 소리가 어울려 내용적 완결성이 높은가?
진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용 시 출처를 밝혔는가? • 표절, 복제 등의 요소는 없는가? • 초상권 등 인권 침해의 요소는 없는가?
예술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혐오감을 유발하거나 미풍양속에 저해되지 않는가? • 구도와 색감이 우수하며, 적절한 이미지를 활용했는가?
기술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기법을 적절하게 활용했는가?

- ①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터뷰 영상에서 얼굴을 보이지 않게 한 화면 처리나 음성 변조 등을 활용하여 개인 정보 보호에 주의한 점이 돋보인다.
- ② 학교 내 따돌림 문제를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되어야 하는데, 주제에 부합하지 않는 청소년 일탈 사례를 재연한 영상을 제시함으로써 내용적 완결성이 떨어진다.
- ③ 따돌림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 주고 있으나 그 해결을 위해 학생들의 노력이 아니라 학교와 학부모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어 기획 의도를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 ④ 아나운서가 문제 상황과 해결 방안을 직접 설명하는 형식으로 영상을 구성하여 수용자의 관심과 신뢰를 얻지 못하고 주제에 동의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의도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
- ⑤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이미지와 구도, 배경 음악으로 영상을 시작했으나 기획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 '과연 우리 아이는?'이라는 부제를 제시하여 초점이 흐려진 면이 있다.

45. <보기>를 고려할 때, (나)의 ㉠과 동일한 쓰임을 보인 예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당신

1. 듣는 이를 가리키는 이인칭 대명사.
'하오'할 자리에 쓴다.
2. 부부 사이에서, 상대방을 높여 이르는 이인칭 대명사.
3. 문어체에서, 상대방을 높여 이르는 이인칭 대명사.
4. 맞서 싸울 때 상대방을 낮잡아 이르는 이인칭 대명사.
5. '자기'를 아주 높여 이르는 말.

- ① 당신이 뭘데 참견이야.
- ② 이 일을 한 사람이 당신이오?
- ③ 당신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 ④ 당신에게 좋은 남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⑤ 할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장서를 소중히 다루셨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